**시간을 믿지 말라. 시간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에이든 토저**

****

†시간을 믿지 말라. 시간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습관적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나이는 더 먹어 가지만

더 이상 거룩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간은 그들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시간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나는 나이가 들면서 탁월한 성도가 된 사람들을 몇 명 알고 있지.

그러므로 나도 나이가 들면, 더 거룩해지고 더 나아질 것이 틀림없어.

시간이 나를 도와줄 것이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소생시킬 거야."

그들은 지지난해에도 그렇게 말했는데

지난해에도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간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보다 나아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그들은

"내년에는 틀림없이 약간의 진보를 이룰거야. 나는 이런 습관적 상태에서 벗어날 거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할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그 내년이 어쩌면 올해를 가리킨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올해에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교해 볼 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올해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시간은 나의 친구야, 시간이 지나면 도움이 될 거야.

나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 내년에는 틀림없이 더 나아질 거야."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습관적 상태에 빠진 채로 나이가 더 들어가지만,

전혀 더 이상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친구라고 믿었던 시간은 기대를 저버리고

그들의 원수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간은 그들이 기대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시간은 영적 일들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을

오히려 증가시켜 주고 있을 뿐입니다.

(에이든 토저가 지은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중에서...)